

뉴스홈 | 최신기사

## &lt;인터뷰&gt; 김광현 "승업이형 승부는 직구로 할래요"

송고시간 | 2008-11-06 16:32



김남권 기자

기자 페이지



## 김광현, MVP 수상!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6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08 삼성PAW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 최우수신인선수 투표 및 각 부문 별 시상식이 열렸다.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SK 김광현이 트로피를 들고 키스를 하고 있다.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2008 프로야구 최고의 별로 거듭난 MVP(최우수선수) 김광현(20.SK 와이번스)은 6일 "여기에서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더 잘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투수가 되고 한국 야구가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던지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광현은 한 중.일 대만 리그 최고팀끼리 겨루는 아시아시리즈에 대해서는 "요미우리 자이언츠나 세이부 라이온즈 타자들이 생각보다 잘치더라"라면서 또 요미우리 이승엽에 대한 대비책을 묻자 웃으며 "승부는 직구로 할래요"라고 말해 국내 최고 투수로서 자신감을 은연 중 드러냈다.

김광현은 시상식이 열린 롯데호텔을 찾은 부모님과도 감격의 포옹을 나누며 프로야구 최고 스타 등극을 자축했다.

GS SHOP

특급 혜택 받으세요! ◆

5,000

10,000

다음은 김광현과 일문일답.

-수상 소감은.

▲아직 어리고 모자란 제게 많은 도움을 주신 감독님과 코치, 팬들 그리고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성근 감독이 직접 넥타이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넌 이제 나에게 먹살잡혔다"라고 말하더라. 앞으로도 김 감독님께 잘해 드리고 싶고 2천승을 달성할 때까지 도와드리고 싶다.

-개표가 진행되던 중 김현수랑 무슨 얘기를 나눴나.

▲재투표는 하지 말자고 그랬다. 현수형은 마음을 비웠다고 하던데 나는 2차 결선투표까지 갈 줄 알았다. 현수형한테

1010회  
모토당첨결과 9 12 15 25 34 36 + 3

##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도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하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



정말 고맙다. 현수형이 (한국시리즈가 끝나고) 슬퍼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을 전화로 전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내년에도 좋은 경쟁자로서 다시 만나고 싶다.

-아시아시리즈에 임하는 각오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내년초 WBC도 있고 하니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죽 잘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투수가 되고 한국 야구가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던지겠다.

-이승엽에 대한 대비책은.

▲요미우리와 세이부 타자들이 생각보다 잘치더라. 승업이형과 승부는 직구로 하겠다.(웃음)

-오늘과 같은 순간이 언제쯤 오리라고 생각했나.

▲이렇게 일찍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작년에 신인왕을 노렸는데 너무 실망과 좌절을 겪어서 자책도 많이 했다. 제 목표는 꾸준히 잘하고 싶은 게 목표다. 잘하자 잘하자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앞으로도 꾸준히 잘해서 기자분들을 오래 봤으면 좋겠다.

-작년 MVP 후보 5명과 올해 후보가 젊은 선수들로 바뀌었다.

▲반가운 현상인 것 같다. 가르시아 빼놓고는 다 젊어서 앞으로도 미래가 밝은 것 같다.

south@yna.co.kr

🔗 관련기사

<표> 프로야구 역대 최우수선수.신인왕  
김광현, 프로야구 MVP.최형우는 신인왕(종합)  
<프로야구> MVP 김광현 "한국 대표하는 투수 되겠다"  
<프로야구> 안타까운 MVP 2인자 김현수  
<프로야구> 6년 설움 이긴 최고령 신인왕 최형우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1/06 16:32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당신을 위한 온종일 마음, 롯데캐슬  
LOTTE CASTLE  
www.lottecastle.co.kr

We Do Technology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쫘쫘...누가 학대했나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쫘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아우 방위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쫘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쫘에 고발

140
- 2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3
-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1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할 동재개 예열?

55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9

뭐하고 놀까? #홍→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맛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피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피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관사제휴문의